

D-3



바람을 이겨라

올림픽 양궁대표팀 기보배가 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모 양궁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보드로모 경기장 관중석 높아 돌풍 잦아...발사대·과녁 부분도 변화 심해 혼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경기장이 열리는 삼보드로모 경기장을 찾은 각국 감독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은 바람이 생각보다 세다는 것이다. 삼보드로모 경기장이 심바축체 때 페레이드가 열리는 장소를 개조해 만든 만큼 경기장 양쪽 측면 관중석이 높게 배치돼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테스트이벤트 대회(프레올림픽)

때보다 약 50일 앞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바람이 더 증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자청 대한대표팀 감독은 “화살이 생각대로 가면 바로 잘못된 점을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발사대와 과녁 부분의 바람이 다르다”면서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선수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녁 위에 풍향계가 있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면서 “과녁 뒷 부분이 보호

막으로 막혀있어 바람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풍향계보다는 사대와 표적 사이 중간 부분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기식 미국대표팀 감독도 “지난해 프레올림픽 때는 여름이었지만 지금은 겨울이다. 회오리바람이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면서 “바람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형철 한국대표팀 감독은 바람에 대한 질문에 첫 마디로 “생각보다 바람이 세다”고 답했다. 이어 오전보다 오후에 바람이 더 세고, 경기장 양쪽 측면은 바람이 약하지만 변화가 심한 반면 중앙 부분은 바람이 세지만 비교적 방향이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감독은 “코치진이 전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겠지만, 순간적인 판단은 선수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바람에 대비해 충분히 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 외에는 당일 컨디션과 세트

제 경기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조명은 큰 영향이 없지만, 조명을 쳐다보면 눈이 부신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프레올림픽 당시 화살을 쏘는 사대 높이가 최고 1.5m까지 높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50cm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선전 경기장에서만 연습해 온 선수들은 2, 3일 토너먼트 경기가 열리는 장소에서 매일 30분씩 훈련한다. 토너먼트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막바지 훈련은 메달 색을 가를 마지막 2%를 결정짓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깨지지 않는 기록

- 1983년 육상 女800m
- 1986년 육상 女400m
- 1991년 남자 멀리뛰기

누가 좀 깨주오

수십년 간 깨지기만을 기다리는 각종 세계 혹은 올림픽 기록들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과연 새 선수의 차지가 될 수 있을까. 2일 리우올림픽 인포 사이트에 따르면 육상에서는 다수 종목에서 세계기록과 올림픽기록이 수십 년째 경신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육상에서 세계기록이 가장 오랜 기간 깨지지 않은 종목은 바로 1983년 자밀라 크라토츠빌로바(체코슬로바키아)가 세운 여자 800m에서의 1분53초28이다. 그 다음으로는 1985년 세워진 여자 400m 기록이다. 독일의 마리아 코크가 47초 60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30년 전인 1986년에 경신된 후 아직 깨지지 않은 기록도 여럿 있다. 남자 원반던지기 세계기록은 유르겐 슐트(독일)가 세운 74m08이다. 남자 해머던지기 세계기록도 당시 유리 셰디크(구소련)가 세운 86m74의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올림픽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남자 멀리뛰기에서 밥 비먼(미국)이 세운 8m90이다. 세계 기록은 마이크 파웰(미국)이 1991년 8m95를 뛰어 경신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독일의 일로나 슐루피야네이 여자 투포환에서 22m41, 나데즈다 올리자렌코(구소련)가 여자 800m에서 1분53초43을 기록해 올림픽 기록을 썼다.

수영의 경우 세계기록과 올림픽기록 모두 2000년대 들어 경신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세워진 것으로, 첨단 소재 전신수영복이 금지된 2010년 전에 세워진 기록들이 많다. 베이징올림픽 때 새로 수립된 후 다시 깨지지 않는 세계 기록은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남자 400m 개인혼영에서 세운 4분03초84다. /연합뉴스



다득점 노려라

리우올림픽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피투아투 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바도르 첫 공식 훈련에서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5일 사상 첫 피지와 격돌...FIFA 랭킹 187위·인도계 주축

신태용호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를 상대로 2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5일 오전 8시(한국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노바 아레나에서 C조 1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는 리우올림픽 개막식 전에 열리는 유일한 사전경기다. 본선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 격인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3-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오른 대표팀은 마지막 와일드카드 멤버인 손흥민(토트넘)의 합류로 날개를 단 상태다.

한국이 피지와 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뿐 아니라 청소년 대표팀이나 여자 대표팀도 대결한 적이 없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대결할 기회가 없었다. 인구 80만 명의 소국 피지는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 소속이지만 지역의 강호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막혀 좀처럼 국제 축구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87위인 피지가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것도 ‘행운’이 컸다. 당초 OFC 올림픽 예선 결승 상대였던 뉴질랜드가 준결승에서 부정

선수를 기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몰수패를 당했고, 피지의 결승 상대가 바누아투로 변경됐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결승전에서 피지는 바누아투를 승부차기 끝에 꺾었다. 인도계가 주축인 피지 대표팀 중 국제 축구계에서 잘 알려진 선수는 드물다. 뉴질랜드 A리그 웰링턴 피닉스 소속으로 올 시즌 16경기에서 6골을 뽑아낸 스트라이커인 로이 크리슈나(28)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도다. 피지는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를 경유하는 38시간의 비행을 거쳐 지난달 28일

브라질에 도착해 아직 지치 적음도 끝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출국해 2차례 평가전까지 치른 신태용호와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지를 지휘하는 호주 출신 프랭크 파리나(52)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야망과 실제 능력을 혼동해선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태용호는 피지를 상대로 단순한 승리보다는 최대한 다득점을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C조 1위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큰 독일·멕시코와 골 득실을 따져야 할 상황이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지는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열린 U-20(20세 미만) 월드컵에서 독일에 1-8로 대패하기도 했다. 손흥민(찰츠부르크)과 석현준(FC포르투), 황희찬(찰츠부르크)을 중심으로 한 해외파와 문창진(포항), 권창훈(수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파가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신태용호도 피지전에서 다득점이 가능성이 충분하다. 신 감독 부임 후 올림픽 대표팀의 최대 득점은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과의 2차전과 지난해 3월 AFC 챔피언십 예선에서 브루나이를 상대로 기록한 5-0 승리다. /연합뉴스

“한국 금10·종합 9위”

美 스포츠매체 전망

“한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 등 메달 총 31개를 획득, 종합 9위에 오를 것”

2일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 트레이티드(SI) 최근호는 2016 리우올림픽에 걸린 금메달 306개의 주인을 각각 예상하면서 한국이 양궁, 유도, 사격,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서 사상대 꼭대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SI는 한국이 양궁 종목에서 개인 2개, 단체 2개 등 모든 금메달을 싹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우진이 구본찬을 누르고 금메달을, 여자 개인전에서는 최미선이 기보배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SI는 유도에서도 한국이 금메달 3개를 추가할 것으로 봤다. 남자 90kg급 광동환, 남자 66kg급 안바울, 남자 60kg 김원진이 그 주인공이다. 남자 73kg에서 안창림이 은메달을, 여자 73kg급 김진디는 동메달을 획득한다고 SI는 예상했다.

사격 종목에서는 진종오가 10m 공기권총, 50m 권총 등 2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할 것으로 SI는 내다봤다. 김장미는 25m 권총에서 중국에 밀려 은메달을 딸 것으로 SI는 전망했다.

배드민턴에서는 이용대·유연성조가 남자 복식 금메달을 거머쥘 것이라는 것이 SI의 예상이다. 배드민턴에서는 혼성 복식에 출전하는 고성현·김하나가 은메달을 덧보탤 것으로 SI는 예상했다. 태권도에서는 총주국인 한국이 금메달을 하나도 얻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연합뉴스

남북 탁구사령탑 ‘찰나의 만남’

강문수 감독·北 김진명 감독 훈련장 통로서 덕담 주고받아

남북한 두 탁구 사령탑이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에서 조우했다. 강문수(65) 한국 탁구 대표팀 총감독과 김진명 북한 여자탁구 대표팀 감독은 1일(현지시간) 훈련장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강 감독은 이번 대회 한국 남녀 대표팀을 이끌고 나왔다. 김 감독은 북한 여자대표팀을 맡았다. 북한 남자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남자 대표팀이 오전 10시에 훈련장인 리우 센트로 파빌리온3에 나와 연습을 시작하자, 건너편 테이블에서는 먼저 나온 북한 여자대표팀이 훈련하고 있었다. 두 시간가량 지난 뒤 연습을 먼저 끝낸 북한 대표팀이 훈련장을 나갔다. 김 감독은 훈련장 통로를 지나가면서 강 감독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두 감독이 리우에 온 이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다.

강 감독이 악수를 청하자, 김 감독은 자신보다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대선배 격인 강 감독에게 허리를 굽히며 꺾듯하게 두 손으로 인사했다. 강 감독이 “열심히 한다. 좋은 결과 있겠다”고 덕담을 건넸고, 이에 김 감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강 감독은 런던 올림픽 때에도 총감독을 맡는 등 대표팀에서만 18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다. 김 감독도 4년 전 북한 여

자대표팀 감독을 역임하는 등 두 감독은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자주 만났다. 김 감독은 이어 안재형 남자 대표팀 감독, 이철승 코치와도 반갑게 인사하며 훈련장을 나갔다. 북한 여자탁구는 한국 여자탁구와 함께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조 추첨에 따라서는 남북 대결 가능성을 말하는 등 대표팀에서만 18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다. 김 감독도 4년 전 북한 여

/연합뉴스